

2020.01.06

참여: 밀, 구름, 달프, 사

서기: 사, 달프

사회: 사

지난 회의

일정

지난 일

- 12/17 13시 휘영 이사
 - 서너명에서 이사 도왔음
 - 잘 살고 있는지 연락 해 보자
- 12/19 21시 차마시는밤2 - 손으로 만들어요 (뜨개질, 손바느질 등 하자)
 - 못 했다
 - 정와가 하는 줄 알고 왔다가 감...(정와 미안해요...).
- 12/21 18시 단편집 생일잔치
 - 구름: 재밌었어요!
 - 가족오락관같은 게임하고 두부강정먹었어요
- 12/29 연말잔치 겸 2회 빈2분영화제
 - (준비가) 힘들었어요...케이크못먹어서 서러움
 - 그래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서 행복했어요
 - 사람들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많이와서 복잡복잡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웠습니다.
 - 제가 제안한 게임(포스트잇 맞추기)이 재밌게 진행되어서 좋았어요.
 - 다른 일정 참석한다고 늦어서 아쉬웠어요.ㅜㅜ
 - 친구 두명 초대해서 빈집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
 - 음식이 생각보다 딱 맞춰져서 놀랐어요. 이 정도 양이 좋은 듯(조금 적은 듯한 느낌)
 - 빈영화제
 - 빔프로젝트가 레드북스에 있어서 노트북으로 상영해서 아쉬웠고 별 거 아닌 기록을 공유한다는 게 좋았어요, (또 하자!!)
 - (밀님에게 빈영화제 소개)

앞으로의 일정

- 13일 15시 회계모임
- 13일 20시 차 마시는 밤3
- 1/18 19시 1&2월 생일잔치 사,구름,달프
- 2/21 빈집 생일잔치
 - 마을 회의에서 일정 잡자 (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기)
- 2/22 빈고 총회
- 1월 마을회의 -> 설 지나고 마지막 주로 물어보자 / 안건취합하기

청소

- 안 한 사람: 달프, 구름

- 왜 안 했나요?
 - 달프: 각잡고 하질 않았습니다.
 - 구름: 기운이 없었습니다. 1층에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.
- 매일 8시에 청소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음
 - 아이디어는 좋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?
 - 아침,저녁 시간을 2개로 고정하자
 - 일정 공유해서 다같이 하자
 - “매일 청소를 하자”는 게 핵심
 -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둡시다. 매일 오전/오후 8시 청소하는 시간!

담당구역

- 지난주
 - 1층
 - 공동구역(주방, 거실): 구름, 이산
 - 작업실: 소년
 - 화장실: 이산
 - 2층
 - 공동구역: 사, 달프, 소년
 - 미닫이방: 달프
 - 화장실: 사
- 이번주
 - 1층
 - 공동구역(주방, 거실): 구름, 밀
 - 작업실: 구름
 - 화장실: 사
 - 2층
 - 공동구역: 달프, 사
 - 미닫이방: 밀
 - 화장실: 달프
 - 뒷마당 정리
 - 다음 주에 얘기하자

안건

집유지 (돈을 모으자)

지난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

- 사람이 적어서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모을 필요가 있다.
- 2개월 동안 50만원을 모으자(만들어 팔거나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)

- 회계 정리가 안 되어 있음.
- 통합회계 하기로 했음..
- 돈을 모으려다가 오히려 돈을 더 사용할 수도 있다
- 구성원의 여력 없음
- 추가 구성원을 모으기 위한 홍보활동
- ->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
 - 집에 사람이 오가는 행사
- ->>빈집 생일잔치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자
- 빈집 메일링 모임하기

1월 마을회의

- 단편집에 연락할 사람: 구름?
- 단편집에서 하자아~
- 안건 취합
 - 통합재정
 - 빈집 생일잔치
 - 연말잔치 정산

집살림

- 회계
 - 회계 모임: 인정 오기 전에 한 번 하자 (13일 15시에 구름, 사 모여서 정리하기로)
- 지출
 - 산 것
 - 연말잔치 준비물
 - 쌀
 - 예정
- 빈집폰 명의 이전: 파이퍼어어어~
- 빈고
 - 조합원 가입자: 이산, 사, 달프, 구름, 빈이락, 짜이

고양이

- 고양이 일지
 - 가끔씩 씁니다
- 고양이 화장실 관리
 - 달프가 수요일에 거실 작은 거 청소
 - 사도 가능하면 하나 하겠습니다

- 고양이 지원
 - 지난주: 사, 소년
 - 너무 오랜만에 회의를 했네요
 - 밥 주는 게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
 - 밥 주고 표시를 합시다(꼭)
 - 만약 집에 사람이 없는데 늦게 나가거나 할 경우에 공유하기 + 간식주고 나가기
 - 이번주: 구름, 밀
- 집 역할 분담
 - 집사: 파이프->다같이~ (빈집 집사 이야기 하기)
 - 공동체활동가: 이산
 - 회계: 구름
 - 지출: 밀
 - 반찬당번: 구름
- 장단투 현황
 - 장투: 달프, 사, 이산, 구름, 밀
 - 단투: 호진(1월 4~5일)
 - 설날 전후로 외박합니다. (사, 구름)
 - 달프의 친구가 1월 마지막 주쯤 부터 몇 주 간 지낼 것 같아요.
- 칭찬합시다
 - 달프가 반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
 - 밀님 친구분들이 봉봉이랑 와인 선물해주셨어요. 홍차 티백도 주셨어요~~!
 - 사가 락앤락을 정리했습니다
 - 사가 세발나물 초장무침 했습니다
 - 익명의 친구가 건두부 갖다줬어요
- 개선합시다
 - 식기 정리를 신경써서 합시다. 설거지가 더러울 때가 있어요..신경쓰시다.
 - 차 마시고 좀 치웁시다. 아침에는 좀 치웁시다.
- 홍보합시다
 - 사 : 이번 주 주말에 책 팔러 갑니다.
- 한주나눔
 - 사:마감을 해야하는데요.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? 달력 오늘 보낼꺼고 건강계 정산 해야하는데 연말이라 사람들이 한해 걸 몰아서 내서 정리해야 할 게 몇십개가 쌓여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. 지금 1층에 있는 데스크탑이 얼마 전부터 안 돼요..그래서 너무 화나요. 기분이 안 좋아요. 고쳐야 건강계정리도 하고 작업도 할텐데...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. 혹시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주세요.
 - 구름: 생일에 옷을 샀고요. 동생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마침 옷가게를 가는 길이라 마음에 드는 옷으로 선물을 받았어요. 응암에 제 단골집이

있는데 정말 너무 좋습니다. 오늘은 11만원어치 호강을 하고 왔어요. 피부관리샵 이용권을 받고 추가비용 해서 마사지도 받았어요. 이런 거 처음 받아서 긴장했어요. 그래도 신기하고 신났어요. 청담동에 있었는데 거기 청담동이라는 걸 나오고 나서야 깨달았어요. 건물이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말로만 듣던 피부관리를 받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. 돈만 되면 일주일에 한번씩 받고 싶어요. 이번주에 교회 식사담당이라 카레만들어서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. 카라멜라이징한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.

- 말: 제 이삿짐을 마저 정리하고 싶어요. 박스가 한 9개정도 왔었는데 지금 1개 남았어요. 빈지공동체에 적응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좀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적응 잘 하고 싶습니다.
- 달프: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한 지 좀 시간이 지났고, 확실히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. 오늘 엄마랑 돈 때문에 얘기를 좀 했는데 스트레스를 살짝 받아서 일을 해야 하나, 일을 해야 하는거야 하고. 알바몬 찾다가 아니야 하고 접었습니다. 진짜 근무시간을 풀타임으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9-6를 보통 원하니까, 정신차리고 다시 나와서 어떻게든 지금을 버텨야 한다고 느꼈고요.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요. (한숨) 돈을 아껴서 쓰는 편은 아니라 좀 걱정이 되고, 그래도 시험이 끝나면 단기로라도 돈을 바짝 벌 것 같아요. 사실 부산에 갈지 안 갈지를 조만간 결정이 날 것 같은데(어디로 갈건가요???). 사실 저는 빈집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 일정을 생각하면 공동체 생활은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결정을 했어요.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. 요즘 좀 정신이 살짝 없구요, 시험 공부를 하는데 다른 일도 터져서 그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당장 급한 건 아니라서 최대한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틈틈히 아침저녁으로 밥을 해서 열심히 먹고 잠도 여덟시간 이상 자려고 하고 있어요.
- 구름: 윤희에게 봤어요. 사실 저는 쿼어영화로만 생각하고 갔는데 (아니지?) 이거는 정말, 이거는 정말 (진짜 좋지 않아요?) 이거는 정말 여성영화입니다. 성장물 같지는 않고 아니, 올해(2019) 들어서 두 번 놀랐어요. 영화를 보다가 김윤석이 만든 미성년을 보다가 한 번 놀랐고 윤희에게 보다가 또 놀랐어요. 남자가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? 이게 잘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. 그 정도로 좋았어요. 이거는 사실 즉흥적인 생각인데 2019년 최고의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모든 장면이 좋았어요. 캐릭터, 전부 다 좋았어요. 일단 남자가 둘 밖에 안 나와요. 일단 이것만으로도 아마 대강의 설명은 되지 않을까. 소장하고 싶어요. 눈 내리는 걸 좋아해서 취향에 맞았고요. 겨울마다 보고 싶어요.

- 다음 회의 사회자: 달프
- 다음 회의는 15일(수) 21시!
- 다음 회의 안건
 - 뭐하고 놀까 빈집 생일잔치
 - 설날